

ACE 7 :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가복음 16 : 19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 16 : 20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 신경 강해의 일곱 번째 순서로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의 구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야 임직할 수 있는 직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가지 직임(OFFICE)을 한 분이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3중 직임이라
하며, 이 직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선

1.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교리적 의미에 대해,
2.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집행되는 삼중 직임에 대하여
3.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은 우리에게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사실이 갖는 교리적 의미

1.1. 본질상 하나님의 속성(attribute)으로 계시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장소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자리에 앉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속성**으로 계시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속성이 아닌 동일한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질상 하나님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 :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Substance, Hupostasis)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붐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1.2 영광의 자리로 복귀(요 17:24)

이것은 또 예수님이 창세 전에 누리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셔서,

요한복음 16 : 28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7 : 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권능의 자리에 왕으로 재위(Session)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 : 20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 편에 앉히사

에베소서 1 : 21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것은 또한 인자로서 계시며 재림을 준비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6 : 6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1.3 증보자적 역할의 수행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신인(God-Man)으로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증보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 :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천하 모든 만물이 굴복합니다(에베소서 1:20-22).

2.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또는 Christ 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The Anointed One)를 의미합니다. 기름부음을 받아야 임직할 수 있는 직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세가지 직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세가지 직임(office)을 행사하십니다.

2.1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직(Kingly Office)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우주의 절대 주권자로서 왕권을 영원히 행사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고(에베소서 1:21-22) 예수님의 왕직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무엘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 지금의 중동 전역을 다스린 다윗 대왕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 : 10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역대상 29 : 11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역대상 29 : 12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reign)**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 : 13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왕 뿐이 아닌 역사상 유명한 정복자인 알렉산더 대제는 인류의 대주재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와, 나폴레옹 황제등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를 처음으로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대지방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한 후,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 사도 행전의 표현을 빌리면 - 마치 열병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기독교가 열병처럼 퍼져 나갔다고 하는 것은 열병처럼 전염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빠르게 퍼져 400년이 못되어 온 유럽과 아시아에 기독교가 퍼졌습니다.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기독교는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 핍박에 증지부를 찍도록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이 바로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A.D. 312년 10월 콘스탄틴 장군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막센티우스라는 장군과 황제권을 위해 싸우러 갈 때 일입니다. 콘스탄틴 장군이 그의 군대와 전장에 나가고 있을 때, 대낮에 하늘에서 갑자기 십자가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십자가는 콘스탄틴 황제만 혼자서 본 것이 아니고,

그의 군대들도 같이 보고, 온 군대가 다 놀랐다고 합니다. 밤에 콘스탄틴 장군이 꿈을 꾸는 중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보여주신(P & X가 겹친) 형상을 모든 군대의 방패에 새겨 넣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콘스탄틴 장군은 이튿날 아침 그리스도께서 시키신 대로 온 군대의 방패에 이 형상을 새겨 넣었고,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이 일 후에 콘스탄틴 장군은 황제로 등극하고,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중지부를 찍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분명한 확신 위에 서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유명한 나폴레옹(1769-1821)을 아실 것입니다. 프랑스의 조그만 섬인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나 전유럽을 통일하고 군인으로 프랑스의 황제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러시아 정벌에서 패배하고 연합군에 의해 축출되어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사망하였지만, 그가 죽기 전에 “아아!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왕중의 왕이로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 세대를 풍미하며, 천하를 무력으로 통일하여 호령하던 세상 군주인 나폴레옹은, 자기는 천하를 지배하는데 실패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승리를 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영원히 재위하고 계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날 초대강국인 미국의 대통령도 군대를 외국에 파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호를 기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권능자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통치자로서 우주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의 절대 주권자로 계심을,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 :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 :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 :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Amen!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분명한 확신 위에 서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하의 절대 주권자인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는 영원히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뛰어난 칭호를 가지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직은 **진리로 다스리는 왕직**입니다. 예수님의 왕직은 영적이며 진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18 : 33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한복음 18 : 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 : 37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은 영적 왕이며 진리의 왕으로 재위하고 계십니다.

2.2. 다음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시절 유대나라에는 예루살렘에 성전과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라고 하는 부족에서만 나오는데, 특별히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와야 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는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자로 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대표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1. 백성 중에서 취해져 그의 소유가 된 자이어야 한다(히 5:1).

히브리서 5 : 1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니

Hebrews 5:1 (KJV) ¹ For every high priest taken from among men is ordained for men in things *pertaining* to God, that he may offer both gifts and sacrifices for sins:

2.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이다. (민 16:5, 히 5:4).

히브리서 5 : 4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도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위에 계실 동안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위에서는 벌써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 : 1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히브리서 9 : 2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히브리서 9 : 3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히브리서 9 : 4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싣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싣 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히브리서 9 : 5 그 위에 속죄소(Mercyseat)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말이 말할 수 없노라

히브리서 9 : 6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히브리서 9 : 7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 일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십계명 돌판들, 아론의 싣난 지팡이가 있고, 성소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 하나님이 명하신 바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혼자서 일 년에 한번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 자신과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휘장으로 가로 막힌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들어 갑니다.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일년에 한차례만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깨질 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갈라졌습니다(눅 23:45).

마태복음 27 : 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태복음 27 : 52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히브리서 10 : 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यो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이 깨어질 때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대제사장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의 직무가 폐지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깨짐으로 인해, 구약의 성전은 폐지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제물을 삼아 이 땅의 성전을 폐해버리시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하늘의 성소에 들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 : 11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 :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9 : 24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재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길 히브리서 1:3 에서,

히브리서 1 :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 합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 신약의 성도는 누구나,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직은 모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 주는 예표요 모형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직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무의 중보도 필요없이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모형인 눈에 보이는 성전과 대제사장직은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의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예수님 안에서 이 자리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6 : 20 은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제물을 삼으심으로 인해, 속죄를 위한 무궁한 능력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10 : 9 -14 은 말하길,

히브리서 10 : 9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0 : 10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 : 11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면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히브리서 10 : 1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 : 14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바로 나의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을 믿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죄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며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로마서 8 : 33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로마서 8 :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아직도 뒤를 돌아 보며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는데, 우리 자신으로 우리를 송사하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 보며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앞만 보며 뛰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냐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 가야 합니다.

2.3 다음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력을 보존하심으로 믿는 자로 하여금 선지자 사역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4 :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고 합니다.

교회는 다른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사역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일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역자나 평신도를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은 자기가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3.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영적 부활을 한 우리의 영도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영적 부활을 한 우리의 영도 함께 앉아 있게 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여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길,

에베소서 2 : 4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 2 :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서 2 :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또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죽은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죽음에서 일어난 우리의 부활한 영은 지금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대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신분이 바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왕으로 선자자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왕된 우리의 위치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죄가 우리의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게 왕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신분이 바뀌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로마서 5 : 17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갈라디아서 2 :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사신 그리스도가 이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 :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또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 : 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바로 여러 분과 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의 힘을 입지 않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아무의 중개도 받지않고 직접 회개의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마리아가 필요없습니다. 사제가 필요없습니다.

2. 신약의 선지자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그의 성령을 믿는 자에게 보내시어 신약의 신자로 하여금 선지자 역할을 하도록 하십니다.

신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 : 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¹⁰ As every man hath received the gift, *even so* minister the same one to another, as good stewards of th emanifold grace of God.

이 구절에서 청지기는 oikonomos(=steward)인데, 이 oikonomos(=steward)가 고전 4:1 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 : 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Let a man so account of us, as of the ministers of Christ, and stewards of the mysteries of God.
비밀을 맡은 자에서 “자” 가 청지기 oikonomos 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이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통하여 전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청지기 들에게 맡기셨습니다. .

고린도전서 4 : 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1 Cor. 4:1 (KJV)

Let a man so account of us, as of the ministers of Christ, and stewards of the mysteries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Identification 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왕자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중생한 기독교인의 Identification 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Identification 입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의 선지자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Identification 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자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